

인터뷰



“자랑스러운 과거·담대한 미래 양 날개로…”

한균태 신임 총장 인터뷰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박창원 기자 macpark342@khu.ac.kr

2019년은 총장 선임 과정에 경희 구성원이 참여한 첫 해로 남게 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제16대 경희대학교 한균태 신임 총장이 선임됐다. 구성원 모두가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다.

‘최초’라는 타이틀에서 오는 무게감,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적지 않은 고비를 모두 지켜본 이유에서인지 한 총장은 “만족이나 기쁨보다 동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쪽에는 70년이라는 묵직한 역사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학교 상황이 그의 두 어깨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총장은 “새가 양 날개로 날듯, 경희의 자랑스러운 과거와 담대한 미래 비전을 날개 삼아 높이 솟아 오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임기 동안 재정 확충과 위상 제고에 최선을 다해 2049년 맞이할 경희 100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장은 “기후위기와 환경과과, 질병, 빈곤, 불평등의 지구적 난제가 인류 사회를 위협하는 한편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이 예측 불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 환경을 짚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통신과 지식체계의 빠른 변화, 생명과학, 인공지능, 우주 과학과 같은 분야에서의 도전이 과거와 사뭇 다른 변화의 기류를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총장은 ‘불확실한 미래’가 오히려 우리대학에는 기회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우리의 미래는 녹록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위기는 곧 기회

라는 말처럼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우리대학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는 포부도 꺼내 들었다.

한균태 신임 총장은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현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한 동문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신문방송국장, 언론정보대학원 원장, 정경대학 학장, 대외협력부총장, 서울부총장 등 대학의 주요 언론, 행정, 학술 분야를 두루 거쳐왔다. 또한 한국언론학회 회장,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방송문화진흥회 감사, 각종 언론 유관단체 위원직을 수행했다. 이에 학교 안과 밖을 두루 경험한 부분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 과정이 구성원 혹은 해당 조직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요했다는 점도 한 총장의 대학 운영에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하는 요인이다.

**열린 소통은 위기 돌파의 원동력  
구성원과 직접 만나겠다**

“커뮤니케이션 전공자이기도 하지 만 대내외 조직을 이끌며 리더의 역할이나 책임과 관련해 소통과 공감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는 한 총장은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은 대학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필수 조건”이라고 못 박는다.

구성원과의 공감은 작은 생활의 영역에서 대학의 비전이라는 보다 묵직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한 총장 역시 “구성원 모두가 대학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열린 소통의 가능성을 높이고 그 방법 역시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열린 소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리더십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한

총장은 소통의 방법 역시 핫라인, 스킵레벨 미팅(Skip-level meeting), 총장 오피스 아워 등 중간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구성원과의 접점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을 구체적인 실현 계획으로 거론했다.

우리대학의 해묵은 사안에 대해서도 한 총장은 소통에 기반한 해결의 실마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비정규직 및 강사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정규직 전환 사례를 들며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을 적극 경청할 계획”이라며 “‘대학노동위원회’를 구성해 대학과 교수, 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 대표들과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열악했던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강사법이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 제도의 첫 시행이다 보니 향후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강사로 채용된 분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그분들의 입장을 듣고, 학교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가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구성원의 각오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한 총장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총장을 비롯한 교수, 직원, 학생 등 모든 대학 구성원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장으로서 열린 리더십과 소통을 약속하며 구성원의 각오와 열의를 주문한 것이다.

유연한 소통과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참을 토대로 한 총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 안정성과 위상 제고’다. 그는 “학문적 탁월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탄탄해야 한다”며 “위상 제고는 결국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그 두 개 요인의 선

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수한 인력을 뽑아야 연구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고, 그 결과는 산단 활성화, 전임금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한 총장은 “확대된 전임금은 다시 내부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지원됨으로써 전체적인 대학의 연구 풍토가 진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선순환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탄한 재정 무엇보다 중요  
지속적인 위상 제고도 과제**

위상 제고에 대해선 ▲연구 수월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 개편 ▲사회진출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구 수월성 제고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친환경 에너지, 차세대 통신, 생명공학 등 미래산업 기반 분야에서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력 양성에도 힘쓸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이야기했다.

또 인문학과 미래 과학이 결합된 융복합 교양교육 신설, 융합전공 교육과정 확대 등 시대 요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창업 관련 지원제도 확대,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 개편, 사회 수요 예측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 제도 운영 등 학생의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재정 안정성에 대해선 “대학 재정 구조의 선진화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수입 및 지출구조 개선 ▲미래 명문 대학 재정구조 정립 ▲법인 및 산하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 확대를 이야기했다.

수입 및 지출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수입 구조 다각화’와 ‘행정 효율성 극

대화’를 들며 “등록금 이외의 수입 창구를 마련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복 업무를 간소화 해 책임소재와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며 “특히 행정 효율성 극대화는 행정절차 간소화, 중복 부서 통폐합, 임시기구 최소화 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 기존의 자율 운영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장은 “연구기획팀 신설 등 적극적인 연구비 수주 활동을 통해 산학협력단 전임금을 확충할 것”이라며 “한방 바이오 자산 등의 지적 자산 사업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WE+ Project), 법인 재정사업본부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학교기업 설립 등 법인과 여타 산하기관과의 연계 협력 사업 방안을 밝혔다. 학교기업 설립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경희 브랜드 마케팅을 염두에 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정구조 정립에 대해 기부금 선순환 생태계 조성, 그린캠퍼스 구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화 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끝으로 한 총장은 “이 같은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성원의 기강 확립과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희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구고 가꾸어가는 경희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0년 경희 역사상 최초로 구성원이 참여한 총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총장으로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총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했다.